

8월까지 해외수주 27억佛... 하반기 호조세 이어갈까

(건설업계 2위)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⑥ SK건설

상반기 승승장구... 무서운 성장세 IPO 지연 땀 투자지분가치에 영향

‘기업가치 4조원, 국내 1위 건설사’.

SK건설 초기행 부회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다. 상반기는 잘 달려왔다. 국내·외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실적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댐이 일부 유실돼 공든 탑이 일순간 무너졌다. 사태 수습이 관건으로 보인다.

◆잘 나가던 상반기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건설의 2분기 매출액은 1조7954억원, 영업이익 989억원, 순이익 4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8%, 109.1%, 130.7% 증가한 것이다. 반기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 3조3022억



SK건설 빌딩. /SK건설

원, 영업이익 1573억원, 순이익 9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2.2%, 영업이익은 71.7%, 순이익은 180%나 늘어났다.

1분기에도 전년 동기과 대비해 각각 2.

6%, 32%, 180% 증가한 매출액 1조5068억원, 영업이익 583억원, 순이익 5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내외 수주전(戰)에서 성과를 낸 영향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SK건설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주한 해외 사업의 계약금은 총 27억2921만 달러(3조826억원)에 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에 이어 업계 2위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8440만 달러(1조5637억원·4위)의 수주를 따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SK건설은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1년간 해외 수주액인 21억1912만 달러(2조3935억원)를 넘어섰다.

국내 정비사업도 활발히 수주했다. 대전 중구 중촌동1구역 재건축(1527억원),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2383억원), 경기도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1940억원),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1087억원) 등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경기도 시흥대

아3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 시공권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땀 붓고 사고에 ‘당혹’

전반적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졌다.

SK건설은 초기행 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을 파견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고 여파로 각종 지표가 불안해졌다.

K-OTC에서 거래되는 SK건설의 가중평균주가는 6월 4만753원에서 7월 말 3만6155원, 이달 2만7735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위 자리를 탈환한 지 약 3개월 만에 자리를 내줬다. SK건설의 시가총액은 7월 말 9453억원으로 전월(1조4054억원) 대비 32.7%(4601억원)나 감소했다.

주식시장 상장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SK건설의 지분을 보유한 SK(44.48%)와 SK디스커버리

(28.25%)는 내년 12월까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K건설을 상장한 후 보유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해외수주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을 보면 아시아가 중동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면 SK건설을 비롯해 전체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SK건설은 코스피 상장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약재가 IPO를 지연시킨다면 SK의 투자지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해당 사태의 원활한 해결 여부가 SK건설의 해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cu.co.kr

내달 전국 2만2646가구 분양

서울·수도권 1만3800여가구 ‘관심’

오는 9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264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에서만 1만38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아파트 공급 규모는 서울·수도권 1만3806가구, 지방 8840가구에 이른다.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8033가구로 광주 경인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제1-2구역 재개발인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하는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이외 지방은 ▲부산(2255가구) ▲경북(2069가구) ▲전남(1510가구) ▲경남(1231가구) ▲광주(1092가구) 등에서 새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다.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975가구)’, 전남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640가구)’ 등이 주요 단지다.

현재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집계된 미분양 물량 6만2050가구 가운데 5만2542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2016년 초만 해도 엇비슷했던 수도권·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대구,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선 청약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과잉, 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다. 또한 ‘뚝뚝한 한채’ 보유 트렌드가 지방 아파트의 선호도를 떨어뜨려 미분양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번지에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래미안리더스원’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7번지에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사당3구역푸르지오’ 41~106㎡, 507가구 중 1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7호선 이수역이 가깝다.

삼성물산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27

(9월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지역	위치	아파트명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푸르지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고양시 토당동	능곡두산위브
	광주시 경인동	광주금호리첸시아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수택향양수자인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안산시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안양시 호계동	호계구사거리재개발 두산위브
부산	영도구 동상동	동상하리푸르지오
	영도구 동상동	동상하리푸르지오
	영도구 동상동	동상하리푸르지오
	영도구 동상동	동상하리푸르지오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전남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

주) 2018.08.02 조사 기준, 분양 계획은 건설사사정이나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REPS

-32번지 일원에 ‘래미안어반비스타’ 49~114㎡, 831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송내1-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497가구다. 지하철1호선 중동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38번지 일대에 원곡연립2단지재건축을 통해 ‘안산원곡e편한세상’ 1322가구 중 3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산시민공원, 화랑유원지 등이 근접해 있다. 지하철4호선·서해선 초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2021년 KTX 초지역이 개통한다.

이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번지 일원 전포1-1구역주택재개발 부지에 ‘부산전포1-1e편한세상’ 39~107㎡, 1401가구 중 8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1호선·동해선 부전역이 가깝다.

GS건설은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록에 ‘문성레이크자이’ 74~138㎡, 975가구를 공급한다. 구포~생곡간 대체우회도로(2019년 예정),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예정)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인컴펀드’ 시중금리+α 라더니...

신통찮은 수익률에 ‘9164억’ 빠져나가

(최근 1년새)

채권금리 상승 ‘주춤’... 수익 부진

신흥국 리스크에 분산투자 기대 ↓

자본시장이 불안할 때 뜨던 ‘인컴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인컴펀드는 배당이나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중금리에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 터키 등 신흥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분산투자 효과에 대한 기대도 꺾이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인컴펀드에서 618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최근 1년새에는 9164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탓이 커 보인다.

인컴펀드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기에 매매 차익은 물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부각돼 자금이

(인컴펀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6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수익률	2.03	-0.76	1.14	4.88	7.89	22.61
설점액	-4,470	-6,186	-9,164	193	-3,143	391

*13일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유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익률이 부진하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주요 투자처인 채권 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컴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0.76%로 떨어져 국내 채권형(1.41%)을 밑돈다. 1년 평균 수익률도 1.14%까지 떨어져 저조한 수준이다.

개별 펀드 가운데 KB이머징국공채인컴(채권)A, 에셋플러스알파로보코리아인컴1-1(주식), 한국투자중국고배당인컴솔루션(주준)(A), 신한BNPI머징멀티에셋인컴(H)(주준-재간접)C-A1,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주준-재간접)A 등 대부분의 펀드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자산운용사도 ‘시중금리 +α’를 추구하는 다양한 인컴 펀드를 앞다퉈 출시해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정작 최근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인컴펀드의 부진에 대해 채권 금리의 변동성을 꼽았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기조 변화와 G2 무역전쟁 등의 이슈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에 터키발 금융위기 등은 더 불안함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글로벌 인컴펀드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자금흐름이 이머징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인컴 펀드 수익률 부진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터키발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신흥국들의 환율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된 자금)가 많은 신흥국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20만명

월평균 연금액 38만7895원

최고 월 204만5550원 수령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47만877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258만4896명과 여자 188만5981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171명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073명이고,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9명이나 됐다. 최고금액 수급자는 서울 거주자로 월 204만5550원을 연금으로 수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영그룹

육계 1만2500여 마리 쫓다

부영그룹이 15일 말복을 맞아 현장 근로자와 임직원에게 몸보신용 육계(肉鷄) 1만2500여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더위에 지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육계는 관리 소 및 현장 근로자, 그룹 내 전 계열사 직원 1만 여명에게 전달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올 여름 사상 최대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한 그릇의 보양식이 든든한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